

특집소설

아 잠깐만요. 우선 한 가지 들려드릴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너무 그러지 마십시오. 미리 전제를 해두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결론만을 서술해서는 지금부터 내가 하려는 말을 하나도 알아들으실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나의 진술은 그 뼈대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붙은 살점들에 주의 기울여야 마땅하다... 이런 점에 신경을 좀 써주시지요. 알아들으셨을 줄로 믿고 그다지 오래지는 않은 옛날이야기 하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중학교에 다닐 때의 일입니다. 제가 사실 그다지 성실한 학생은 아니었습니다. 요령 좋게 우등생 사정에서 벗어나지는 않고 있었지만 공부 자체에는 의욕을 잃은지 오래였고, 하루 2, 3회씩의 격렬한 자위행위를 치러야만 했고, 나보다 몇 살씩 나이 많은 선배들을 따라다니면서 술취를 하는 일에 빠져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만만한 선생들의 수업시간에는 애매하고 지루한 질문들을 던져서 분위기를 망쳐놓는 선봉 역할을 마다하지 않았고, 수업료나 육성회비나 하는 각종 공과금이나 잡부금은 몇 차례씩 독촉을 받아가면서 최대한 늦게 내는 것을 즐기고 있었지요. 당시 우리 학교에는 아간중학을 다니는 여학생이 급사로 일하고 있었는데, 나는 그 급사가 지나가면 하면 마쳐 잠자는 사이인 것처럼 그 이름을 콘소라 부르는 일을 상당히 자랑스러운 도락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내가 창가에 매달려서 급사의 이름을 부를 때면 반이들이 온통 내 뒤에서 모여들어서 히히덕거리곤 했습니다. 그런 아이들에 게 주는 시간마다 설익은 성식을 전달해주는 게 또 꽤 좋을 수 있는 게 일 같았습니까. 아, 그 뿐입니까? 당시의 우리들은 거의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학생모를 길고 불렀고, 가방을 옆구리에 끼고 가는 어깨를 잔뜩 움츠리고 다니는 것을 멋으로 알고 있었는데, 친구들은 누구나 제 품이 가장 그럴 듯하다고 인정을 해주었습니다. 그렇고, 그 품이랑 제 얼마나 중요합니까? '결별안'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그때도 겨우 그 뿐이라면 나는 일개건달에 지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당시의 어린 내 친구들은 나를 무슨 반체제의 리더쯤으로 알아주고 있었습니다. 벌써부터 재크나이프며 자전거 체인 같은 것을 가방에 숨겨 가지고 다니던 본격적인 불량학생들도 나한테만은 늘 동경의 시선을 보내고 있었거든요. 물론 나는 그런 류의 아이들과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처신의 능란함에 이미 눈을 뜨고 있었습니단만...

어렸던 아이들의 그런 인식은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럴만한 계기가 있었지요. 그러니까 3학년으로 갔 집합한 후의 일입니다. 전교학생회장이었다 내 친구가 수업시간에 여선생에게 방자한 태도를 취했다는 이유로 하나로 정학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 그랬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학교에서는 학생회 간부가 처벌을 받게 되면 자동으로 그 일원직을 박탈당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생회장직을 내놓게 된 내 친구는 분을 이기지 못한 나머지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버리고 말았습니단.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에 의해 그 친구를 뽑았던 학생들은 온통 술렁거리고 있었습니단. 누군가 불을 지르기만 하면 큰일이 터질 것만 같은 분위기였지요. 학교측에서는 일을 빨리 수습하는 방법으로 서둘러 보결선거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보를 사전조정하려고 시도했습니다. 아이들이 보기에 그걸 뜻하고, 다시 물의를 일으키지는 않을만한 인물을 찾던 선생들이 일차로 낙점을 내린 것이 바로 나였습니다. 사실 이런 말까지 하고 싶지는 않지만, 나는 그 전 학기에 있었던 학생회장선거의 차점낙선자였습니다.

어느날, 수업시간 중에 교감 선생이 나를 불러내더군요. 분위기가 분위기였지만 나는 교감 선생이 불러내는 이유를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 점을 반이들도 마찬가지여서 교실을 나서서 동위로 쏠아서는 사선들이 따라가했습니다. 테니스장이 내려다 보이는 콘소라에서 교감 선생이 해준 얘기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보결선거에 나서라, 단일 후보가 되도록 조정을 해주겠다, 찬반투표를 했을 경우 당선되는 것은 식은 죽 먹기다, 나는 리더쉽이 있으니까 잘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지난번 선거에서 네가 됐으면 더 좋았을 것을...

교감선생은 큰 은혜를 베풀듯 말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거부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하는 듯했습니다. 그 짧은 순간, 내 마음 속에 불같이 일어났던 욕심을 부린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결국 고개를 가로챘고 말았습니다. "안하느니라"

교감선생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이유를 묻더군요. 나는 대답했습니다. "이번 일을 저는 받아들이 수가 없습니다.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한 마디로 협상은 결렬되었습니다. 교감선생은 아무 말없이 물러났습니단. 조금은 서운하고 조금은 뿌듯한 기분으로 돌아서보니, 그 사이에 수업이 끝나서 반이들이 온통 창가에 매달려 있었습니단. 협상의 결말을 지켜보고 있었던 거지요. 아이들은 교감선생과 내가 갈라서는 모습에서 이미 사태를 짐작한 듯 있었습니다. 교감선생이 교사 모퉁이를 돌아 사라지자마자 열린 창문으로 소나기처럼 박수소리가 쏟아져 내려더군요. 그 하나의 사건으로 나는 아이들의 우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부당한 권력으로부터의 유혹을 단호하게 거절해 버린 인물이었으니까요. 그렇지만 그 유혹을 거절할 수 있었던 것은 사실 알만한 자존심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나 자신이 차점낙선자가 아니었다면 나는 그 권위를 받아들였을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그 후 교감선생은 또다른 친구를 골라 교섭을 했고, 녀석은 그 제의를 단박에 받아들여서 결국 보결선거에서 유석정치를 거쳐 학생회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학생회장보다도 내가 더 신망있는 인물이었던 것은 의심할 여지 없는 일입니다. 어떻습니까? 이쯤 설명하면 내가 동료학생들에게 어떤 존재로 비쳐지고 있었는 지 충분히 짐작이 가지지요? 뭐라고요? 지금이 어디 그렇게 케케묵은 무용담이 늘어놓고 있을 때나가요? 물론 아니지요.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내가 마치 학교라는 제도를 초월한 존재처럼 행세하고 있던 어느날의 일입니다. 아마 영이시간이었다고 기억됩니다만... 수업이 한창 진행중인데 교실 뒷문으로 누군가가 담임선생이 들어서서 게 아나 있었습니까? 그 모습을 보자 한창 리드미컬하게 영어교과서를 읽어내리던 영어선생이 책을 내려놓더군요.

"모두 책을 놓고 손을 머리에 올려라"

담임선생도 눈을 부라리고 있었습니다.

"빨리 시키는대로 해!"

영문을 모르고 손을 올리는 아이들 속에서 누군가 낮은 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담배점사..."

그 소리를 들은 담임선생은 허겁지겁 웃더군요.

"그래, 담배점사. 손을 내리는 놈은 담배 피우는 놈으로 간주한다. 움직이지 마"

그렇게 해서 주면서 담임선생은 교단 앞으로 가서 섰고, 영어 선생이 앞다 땀분을 지키고 앉습니단. 담임선생은 반이들의 얼굴을 쭈욱 훑어보다가는 손가락으로,

"너, 가방 들고 나와"

하고 한바퀴 앞으로 불러냈습니단. 물론 평소 행동이 미심쩍던 아이들을 끌라내는 거지요. 불러나온 아이들은 담임선생에게 치밀한 신체검사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주머니를 뒤집어서 털어보고, 가방을 살살이 뒤지고, 뽕새를 맡아보고...

그런데 신기하게도 담배가루나 뽕새를 적발했다는 아이들이 없었습니다. 불러나온 아이들 중에는 이미 '꿀초'소리를 듣는 녀석들도 있었는 말이지요. 그런 모양을 바라보고 앉아서 나는 녀석들의 완전범죄에 혀를 내두르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얼굴을 뒤집는 데 중거를 포착하지 못하자 담임선생은 조금 초조해 진 것 같았습니다. 반이들은 오히려 신이 나서 킁킁거리고 있었습니단.

"조용하게 해!"

바닥 소리를 지르곤 담임선생의 불거진 두 눈이 다시 교실 구석구석을 훑고 지나갔다. 실더니 이윽고 내 얼굴에 닿아 몇몇 습니다. 큰 종소리와 같은 손가락이 나를 가르쳤습니단.

"너"

그 순간 내 눈에 비친 담임선

생의 얼굴은 거의 비장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확신에 차 있었습니단. 아니꼬운 표정을 숨기려고 하지도 않으면서 가방을 들고 일어나는 나를 향해 그는 선언하고 있었습니단.

"너한테도 없으면 우리 반에는 담배 피우는 놈이 없는 걸로 치겠다"

천천히 교단 앞으로 나가면서 나는 온몸에 아이들의 따가운 시선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단. 한 가지 틀어놓기나 하는 게 아니라, 그 때 아이들은 나한테서 혐연의 흔적이 발견되기를 바라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기를 원하고 있었을까요? 모르겠습니단. 내키지 않는 기분으로 맞고 대답을 해주자 상대는 더욱 목소리를 낮추고 있었습니단.

"저는 통일문학이라는 잡지에 근무하는 이용호라고 합니다. 잠시 뵈고 의논을 드릴 일이 있는 데요. 지금 찾아봐도 되겠습니까?"

통일문학, 이용호, 의논드릴 일... 그 세 마디는 남은 잠을 쫓으면서 내 머리속을 파랑새 스치고 지나갔습니단. 이용호라는 이름은 들어본 적이 없었지만 통일문학이라는 잡지가 얼마전에 정간처분을 받았음을 나는 신문 기사를 통해 알고 있었습니단. 그 잡지를 사실상 주도하고 있던 재

아운동간 김통일씨가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수배되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단. 그런데 의논할 일이라... 김통일씨를 정말 만난 적이 없습니단? 물론입니다. 그래서 나는 되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자하고 의논할 일이 있습니단?"

"네, 잠시만 뵈나. 지금 가겠습니다"

이용호라는 친구는 마치 늘 드나들던 곳이기도 한 것처럼 거침없이 따라와 갔습니단.

"오후엔 내가 좀 바쁘네..."

"잠시만 시간을 내주세요"

이용호는 그렇게 전화를 끊었다. 그 후 몇몇을 맞을 여유가 내겐 없었습니다. 통일문학, 김통일... 그 두 개의 단어가 묶여온 예감으로 해서 온몸이 서늘하게 오드러드는 듯했습니다. 그런 예감을 가졌으면서 왜 인내하게 거절을 하지 못했습니단? 바로 그 점을 설명하기 위해서 학생시절 얘기를 꺼냈던 겁니다.

담임선생이 책을 못가기는 표정으로 빈 가방을 쏟아진 책들 위에 내던졌을때 나는 속으로 만 안도의 한숨을 내쉬 수 있었습니단.

그때, 나는 담배를 안피우지, 원래 안피웠습니단.

담임선생은 더는 아무런 말이 없이 불어넣 얼굴로 교실을 나가 버렸고, 나는 천천히 가방을 쥘 것 습니다. 참으로 아찔한 얼굴을 하고 있는 영어선생과 엇갈릴 때 누군가가 또 나직하게 속삭였습니다.

하이. 하이.

수업이 끝나자 아이들이 내 자리에 몰려들었다. 그 속에서 누가 물었습니다.

"아, 어디다 짤랐냐?"

어디에 담배를 숨겼느냐는 그 말에 나는 사실대로 대답을 했습니다.

"나, 담배 안피워"

하하하... 하고 몇 아이가 요란하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단. 나

수와도 같이 내 가슴을 저며들고 왔습니단. 그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해성파도 같이 나타났던 소설가, 그리고 7, 8년간의 논부신 활동으로 해서 이제 는 운동권의 대부처럼 여겨지는 그 이름과 그가 실재하는 인물이나 아니냐를 놓고 논란이 있을 정도로 신화적인 존재가 된 그 이름을, 하지만 나는 역시 영문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김통일과 나 사이에 어떤 연계가 있을 리 만무했습니단. 그래도 나는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의 호의를 담아 말했습니단.

"그 양반은 어떻게 지냈습니단?"

"수배중이라는 거 모르십니까?"

나는 하마터면 또 얼굴을 붉힐 뻔 했습니단.

"아니, 또 무슨 일로요?"

"뭘,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고무찬양... 그런 겁니다"

고무찬양... 막연한 소리였지만 나는 더 묻지 않았습니단. 대충 감을 잡을 수 있기도 했거니와, 세세한 질문을 던진다는 것 자체가 그 방면에 대한 나의 무지를 그대로 드러내는 일이 될 게 뻔했습니단. 하하하 웃는 그를 따라서 나도 애매한 웃음을 흘렸습니단. 이용호는 용의주도하게

이야기를 진전시켜 나가더군요.

"뭘, 그분이 숨어다니는 거야 어제오늘의 일입니까만, 요즘은 좀 문제가 있습니단. 몸이 좋지 않아요"

아하, 하고 나는 맞장구를 쳤습니단. 결코 알고 있는 친구의 비위를, 참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단. 평생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그 분을 이해할만한 분들을 저희들이 찾아다니면서 협조를 구하는 중입니다. 그 분이 병을 치료할 때까지 온신할 집을 하나 구할 생각입니다. 그 편이 안전하겠지요"

이제야 그 친구의 용건은 조금 난해해졌습니단. 그러니까 머리를 하려 다닌다는 말이 되는 거지요. 모금이라는 것 자체가 있을 수도 있는 일이라고 여겨졌지만, 온신하기 위해 집을 찾는 일이, 왠지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단.

"그러니까 모금을 한다는 얘긴가요?"

"그렇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는 이용호의 얼굴에 애제 웃음기는 사라져 있었습니단. 그리고 곧 부연설명을 하더군요.

"일단 일역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며, 여러분이 많이 도와 주셔서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1억? 나는 그가 무언가 설명을 잘못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잠깐 하고 있었습니단. 온신 아니냐. 집을 사느니 하는 말을 들으면서도 사실 나는 어느 생각의 외딴길 같은 것을 떠돌고 있었습니단. 1억짜리 집이라... 나는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일억이라고 했나요?"

"네, 일억짜리로 일억입니다"

이용호는 담담하게 대답하고 있었습니단. 나는 순간적으로 엄

▶ 저자 약력
1956년 제주하귀에서 출생
제일고교 거쳐서 경희대 국문과 졸업
1985년 단편 '거인의 잠' 중앙일보 신춘문예에 당선
1988년 장편 '거인의 잠' '갈탄자루의 사상' 작품선집 '비둘기는 집으로 돌아간다'
1989년 '대하소설' '빈방'
1991년 '최후의 계엄령' -가상정치소설

고 원 정

〈본보동문·소설가〉

분들 중에는 이백만원까지 내신 분도 있고, 백만원씩 내신 분도 많이 있습니다"

검은 테 안경 속에서 빛나고 있는 그의 두 눈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당신은 언젠가 하룻밤 술자리에서 철심한 원을 뿌리기도 했지 않느냐. 작부들의 엉덩이를 쓰다듬고 젓가락 장단에 맞춰 나나노나 부르기 위해 철심한원을 뿌릴 수 있으면서, 그리고 딸아이에게 만화영화를 보이기 위해 빌딩맨만원짜리 비디오테이프를 사줄 수 있으면서, 쫓기는 민중의 대변자를 위해 오십만원이 많다고 놀라고 있느냐...

이용호는 그런 눈빛으로 나를 물끄러미 바라다볼 뿐 더는 말이 없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단. 그리고 결국 배기를 든 것은 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좋아요, 기왕에 그렇게 정하고 있다면, 액수를 가지고 와서 알바하고 싶지는 않아요. 오십만 원을 내기로 하지요"

"고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금을 가진 게 그렇게 되지는 않아요. 나중에 다시 들려줄 수 없어요?"

이용호의 입가에 다시 미소가 스쳐갔습니단. 나는 그의 시선을 슬며시 피해 버렸습니단. 알 수 없는 일이지요. 나는 왜 그렇게 거미줄에 걸린 빌레처럼 꼼짝을 못하고 있어야 했을까요? 땀과 함께 그 누구도 알지 못하고 살았습니단. 이용호는 한참만에야 정신을 쏘듯 말하고 있었습니단.

" 좋습니다. 언제 다시 찾아볼까요?"

"그 날이 수요일이었습니다. 나는 말했습니다."

"토요일 오전에 전화를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 때 뵈겠습니다"

고개를 숙여보고 나가는 그를 나는 제대로 배웅하지 못했습니다. 누구에게나 흔한 부끄러움 같은 것은 사소한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날 밤에 나는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단.

나는 갈베했다.

금요일 밤에 나는 꿈을 꾸었습니다. 어딘가 사람들이 많이 모인 회고운동장 같은 곳이었습니다. 아마 무슨 군중대회가 열리고 있는 모양이었는대, 놀라게도 나는 김통일씨와 함께 나란히 연단에 서서 만세를 부르고 있었습니단. 만세, 만세... 꿈속에서 그런 나 자신에게 나는 적지않게 당황하고 있었습니단. 이래서는 안되는대, 이게 어니대... 하지만 나는 계속해서 만세를 부르고 또 불렀습니단. 만세, 만세... 화들짝 놀라 일어나보니 꿈이었지요. 온몸이 땀으로 젖어있습니단. 한밤중에 깨어나 앉아서 나는 꿈속에서보다도 더 당황한 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다양한 일에 내가 이토록 휘둘리고 있다니, 두 눈을 붙이지 못하고 아침을 맞으면서 나는 결심했습니다.

주지 말자.

이용호가 전화를 해오면 당당하게 돈을 못 주겠노라고 선언하고 있었습니단. 나는 그걸 듣고는 그날 밤에 잠을 못 자고 있었습니단. 그날 밤에 나는 그날 나의 결심을 뒷받침하기 위한 가설을 하나 세웠습니단. 어쨌든 나는 이용호에게 돈을 주지 않기로 하고 출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좌석편을 타고 사무실로 오는 동안에 나의 마음은 다시 흔들리고 있었습니단. 막상 이용호에게서 전화를 걸려왔을 때 용기있게 '돈을 못내겠소'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았습니단. 그는 끈질기게 논쟁을 걸어서 나를 험잡았습니단. 논쟁적으로 나를 비웃을 지도 모릅니단. 그 웃음

소리는 두고두고 뇌리에 남아서 나를 괴롭힐 거 아니겠습니까? 끝내 나는 아주 비열한 결론에 도달하고 말았습니단. 전화코드를 뽑아버지라는 것이었습니다. 혹시 직접 찾아올 경우를 대비해서 사무실 문도 안으로 잠가버려서 자는 것이었습니다. 아예 한 바퀴 여행을 떠날까 싶기도 했습니단. 어떤 식으로든 그로부터의 연락을 차단하겠다는 마음을 굳히고 나는 사무실이 있는 빌딩으로 들어갔습니단. 하지만, 하지만 말입니다. 역시 그는 나보다 한 수 위었습니다. 그동안에 내가 겪은 갈등과 내린 결론을 이미 훤히 들여다보고 있었다고 할까요? 이용호는 처음 나를 찾아왔을 때처럼 사무실 앞에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단.

"안녕하세요?"

꾸벅 고개를 숙이는 그의 얼굴에는 예의 그 비웃는 듯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단. 내심을 들켜버린 당혹감에 나는 짜증스럽게 문을 수 없었습니다.

"전화를 해달라고 하지 않았던가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랬습니단. 오늘 오전에 넘기면 김통일씨하고 선이 끊어지거든요"

태연하게 받아넘기는 그에게 나는 무어라 할 말이 없었습니다. 예상했던 것처럼 막상 그와 마주치자 밤새온 나의 결심이 그 알발로 눈독두 무너져내리고 만 겁니다. 이렇게 된 바에는 일을 빨리 처리하자고 나는 마음먹었습니다. 내 속을 들여다보니 그 의 눈빛을 오래 대할 자신이 없었는데가 정당한 표현이었지요. 시계를 보니 은행이 문을 열 시간이었습니다.

"가십시오"

앞장서는 나를 이용호는 아무런 말없이 따라왔습니다. 나는 그를 데리고 가까운 은행으로 갔습니단. 그리고 현금자동출금기에서 현금카드도 오십만원원을 빼냈습니단.

"여기 어요?"

웬지 후죽근히 쫓는 듯한 눈길로 나는 돈을 내밀었습니다. 이용호는 두손으로 돈을 받아서 메고 있던 가방에 넣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별말씀을요"

애써하게 웃어보이는 나를 향해 서서 이용호는 잠시 망설이는 눈치다 이윽고 예의 미소와 함께 한 마디를 던졌습니단.

"여러분을 만나뵈지만, 선생님이 제게 인강시켰던 것 같습니다"

내 표정이 어땠겠는지 한 번 상상해 보십시오. 넋이 나간 듯이 서있는 나를 두고 그는 총총히 멀어져갔습니단. 가냘픈 그의 뒷모습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단. 나도 예전에는 바로 이런 뒷모습을 가지고 싶어한 적이 있었다는 생각이 더욱 나를 초라하게 만들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의 일입니다. 전교생의 절반 정도가 스트라이크를 일으킨 일이 있었습니단. 소위 우월한 편을 반대한다는 명분에서였지요. 스트라이크에 가담한 학생들은 운동장에 모여 농성을 하고, 알찬고 공부할 때는 축출은 교실에 남아서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단. 나는... 학교측도 못마땅했지만, 이미 그런 단체행동에 영감을 받고 있던 터라 운동장 구석에 있는 벤치에 홀로 앉아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단. 하하하 웃어가면서요. 그런데 누군가가 갑자기 등뒤에서 뽕뽕수를 갈기질 않았습니단. 깜짝 놀라 돌아보니 우람한 덩치를 자랑하는 체육선생이 서있었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내 뽕뽕수를 때렸습니다.

"왜 여기있는 거냐? 이 문제야"

나는 농성중인 아이들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대뜸 항변했

점은 지식인의 변명

도시락이며를 뿌리고 또 뒤졌습니단. 먼지가 부엌에 일도록 가방을 털고 또 털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더군요. 나는 그저 심드렁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단. 사실은 조금 불안해하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나도 모르는 어떤 초점, 즉 담배광조나부라이가 꼭 떨어지나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지요. 어쩌면 꼭 그럴 것만 같은 예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단. 물론 나는, 나 자신이 담배를 입에 대면 일어났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여전히 자꾸만 이상한 생각이 드는 겁니다. 혹시 나는 담배를 피우고 있지 않았던가, 그레놓고 기억을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나는 거의 끝초의 수준인 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꼭 그럴 것만 같습니단. 누군가가 뒷가에 대고 음산하게 속삭이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너는 담배를 피운다.

년 담배를 피우잖나?

담임선생이 책을 못가기는 표정으로 빈 가방을 쏟아진 책들 위에 내던졌을때 나는 속으로 만 안도의 한숨을 내쉬 수 있었습니단.

그때, 나는 담배를 안피우지, 원래 안피웠습니단.

담임선생은 더는 아무런 말이 없이 불어넣 얼굴로 교실을 나가 버렸고, 나는 천천히 가방을 쥘 것 습니다. 참으로 아찔한 얼굴을 하고 있는 영어선생과 엇갈릴 때 누군가가 또 나직하게 속삭였습니다.

하이. 하이.

수업이 끝나자 아이들이 내 자리에 몰려들었다. 그 속에서 누가 물었습니다.

"아, 어디다 짤랐냐?"

어디에 담배를 숨겼느냐는 그 말에 나는 사실대로 대답을 했습니다.

"나, 담배 안피워"

하하하... 하고 몇 아이가 요란하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단. 나

수와도 같이 내 가슴을 저며들고 왔습니단. 그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해성파도 같이 나타났던 소설가, 그리고 7, 8년간의 논부신 활동으로 해서 이제 는 운동권의 대부처럼 여겨지는 그 이름과 그가 실재하는 인물이나 아니냐를 놓고 논란이 있을 정도로 신화적인 존재가 된 그 이름을, 하지만 나는 역시 영문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김통일과 나 사이에 어떤 연계가 있을 리 만무했습니단. 그래도 나는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의 호의를 담아 말했습니단.

"그 양반은 어떻게 지냈습니단?"

"수배중이라는 거 모르십니까?"

나는 하마터면 또 얼굴을 붉힐 뻔 했습니단.

"아니, 또 무슨 일로요?"

"뭘,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고무찬양... 그런 겁니다"

고무찬양... 막연한 소리였지만 나는 더 묻지 않았습니단. 대충 감을 잡을 수 있기도 했거니와, 세세한 질문을 던진다는 것 자체가 그 방면에 대한 나의 무지를 그대로 드러내는 일이 될 게 뻔했습니단. 하하하 웃는 그를 따라서 나도 애매한 웃음을 흘렸습니단. 이용호는 용의주도하게

이야기를 진전시켜 나가더군요.

"뭘, 그분이 숨어다니는 거야 어제오늘의 일입니까만, 요즘은 좀 문제가 있습니단. 몸이 좋지 않아요"

아하, 하고 나는 맞장구를 쳤습니단. 결코 알고 있는 친구의 비위를, 참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단. 평생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그 분을 이해할만한 분들을 저희들이 찾아다니면서 협조를 구하는 중입니다. 그 분이 병을 치료할 때까지 온신할 집을 하나 구할 생각입니다. 그 편이 안전하겠지요"

이제야 그 친구의 용건은 조금 난해해졌습니단. 그러니까 머리를 하려 다닌다는 말이 되는 거지요. 모금이라는 것 자체가 있을 수도 있는 일이라고 여겨졌지만, 온신하기 위해 집을 찾는 일이, 왠지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단.

"그러니까 모금을 한다는 얘긴가요?"

"그렇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는 이용호의

“너같은 놈이야말로 문제아지. 저 놈들이야 하다 안되면 때려서라도 말을 듣게 할 수 있지만 너같은 놈은 이 쪽도 저 쪽도 아니고 항상 결 돌기만 하니까”

는 그 때 왜 서둘러 덧붙였던 걸까요.

"정말야, 난 담배는 입에 대본 적도 없습니단."

아이들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단. 그레도 한 녀석은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이죽거리더군요.

"아, 그 말 믿을 놈이 누구 있냐?"

"정말야, 썩어아!"

나는 책을 쥘고 일어나면서

고는 꽤 넉넉하게 지내는 편이라고 사람들은 나를 두고 말합니단. 하지만 내가 여기까지 돈을 끌어당겨가면서 장난한 위생도시의 아파트 값이 6천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은신용으로 1억짜리 집을... 그것도 김통일씨는 노동자, 민중의 대변자라고 이해되고 있지 않습니단. 김통일이라는 이름에 주목하던 상태이면서 도 나는 피조고 버티어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난 이해가 가지 않아요"

"어떤 점이 그렇습니까?"

논쟁이라면 얼마든지 환영한다는 표정으로 이용호는 두 눈을 빛내고 있었습니단.

"요즘 신문들 봅시다. 옛그제

다. 오십만원이란 액수의 부담감은 지적해야 했지만, 역시 제재하라는 인상은 주지 말아야 했으니까요.

"그 건 솔직히 말해서 너무 액수가 크군요. 난 그정도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도대체 얼마씩 모아야 일억이 된다고 생각하셨습니까?"

그 친구는 내 생각의 헛점을 예리하게 지적하더군요. 나는 얼굴을 붉힐 뻔 했습니단. 다시 변명하듯 말을 해야 했지요.

"일억이든 오십만원이든 내가

이용호의 입가에 희미한 웃음

이 스쳐갔습니단. 아까 말한 그

정중함과 너무도 닮은 웃음이었

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만난